

시편78(77), 3과 4ㄱㄴ. 23-24. 25와 54

(후렴)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.

1.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,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
것을 전하 리 라.
2.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 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 시 어
3.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 네.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 셧 네.

주님의 영광스러운	다가올 세대에게
행적과 권 능 을	들려주려 하 노 라.
만나를 비처럼 내려	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 셧 네.
그들에게 먹이 시 고	
당신의 오른 팔이	당신의 거룩한 영토로
마련하신 이 산 으 로,	그들을 데려 오 셧 네.